

“성공적인 민관합동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힘쓸 것”

용홍택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



안녕하세요. 과학기술정보통신부(과기부) 제1차관 용홍택입니다.

지난 4월에도 혁신형 SMR 국회 포럼을 개최했었습니다. 그 이후에 원자력계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계 전반, 그리고 언론에서 SMR에 관한 기대와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.

이번 포럼을 마련해주신 이원욱, 김영식 공동위원장님과 양정숙, 조승래 의원님을 비롯해서 한국수력원자력, 한국원자력산업협회,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모두의 노력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.

과기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9월 1일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(예타) 조사를 신청했습니다. 2023년부터 2028년까지 6년간 개발비용 총 5,832억 원으로, 그 중 정부는 3,936억 원이고 민간이 1,846억 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입니다. 그동안 예비타당성조사 기획위원장으로 활동해주신 정동욱 교수님과 규제 제도 개선 발굴에 힘 써주신 황주호 교수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. 바쁘신 와중에도 예타 교육에 참여해주신 50여 명의 기획위원님, 또 계획 과정에서 다양한 제언과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전문가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.

정부는 상용원자로 개발 분야의 첫 예타인 혁신형 SMR 개발 사업이 성공적인 민관합동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, 또 적시에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또한 기술개발에서 규제개선, 수출 사업화까지 잘 연계될 수 있도록 부처간 상호 협력과 소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**KMIF**